08
주일

말씀 농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들려주시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찬송 200장

성경 이해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 모여든 무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춘 사람은 깨달을 거라 하십니다(1-9절). 열두 제자와 몇 사람이 비유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받은 '좋은 밭'임을 인정하십니다. 한편 나머지 밭에 해당하는 '바깥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할 수수께끼 정도로 여길 거라 하십니다(10-12절).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복음 전파의 상황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할 테고, 혹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 해도 외부의 박해와 내면의 욕심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참마음으로 받고 결실하는 사람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13-20절).

기도제목

나의 적용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0, 11절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말씀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질문한 제자들처럼, 책을 보고 말씀 교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으십시오.

14-20절 말씀의 열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가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환난을 견뎌야 하고 유혹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가꾸면 그 수고를 다 보상하고도 남을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희열을 누릴 것입니다. 수확할 때를 바라보며 매일 말씀의 씨앗을 심고, 순종으로 그 씨앗을 가꾸십시오.

마가복음 4:1-20

씨 뿌리는 사람 비유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
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
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뭍에 있었다. 2 예수께
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
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
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5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
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6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
어서 말라 버렸다. 7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
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런
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가 되었다." 9 예수께서 덧붙
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
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 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12 그것은 '그들이 보기
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
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
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 비유의 설명

13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
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14 씨를 뿌
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15 길가
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
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16 돌
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17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
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
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18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
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
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20 좋은 땅
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12절 예수님은 이사야 6:9-10을 인용하셨다. 이 말씀엔 완악한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바람이 담겨 있다.
20절 팔레스틴 땅에서 열 배의 소출을 거두면 풍작으로 여겼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는 상식을 훨씬 웃도는 수확량이다.

나의 기도 말씀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꾸겠습니다.

09
월요일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더 많이 깨닫겠지만, 자기 귀를 막는 사람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찬송 587장

성경 이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 성취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히 드러날 테지만, 그때까지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이야기 방식입니다(21-23, 33, 34절). 이 말씀을 더 듣고 배우기 원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더 많이 깨우쳐 주실 것이지만, 이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무지하게 될 것입니다(24, 25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두 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 낟알을 맺고 여물 듯이, 하나님 나라도 사람의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장하고 무르익습니다(26-29절). 또한 작은 겨자씨가 나무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하듯, 하나님 나라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30-32절).

기도제목

나의 적용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6-29절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 자체에 있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의해 약동하고 결실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결실을 의심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듯,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30-32절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커집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미약해 보이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나무'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21-34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
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22 숨겨 둔 것은 드러나
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
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25 가진 사람
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
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27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
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낟알을 낸다.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
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겨자씨 비유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
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32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
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비유로 가르치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
씀을 전하셨다.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나의 기도 내가 하는 작은 수고를 통해 창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 주소서.

10
화요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도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지만,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찬송 345장

성경 이해

예수님은 배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 곧 이방인이 사는 '거라사 지역'(5:1)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 말고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35, 36절).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때 센 풍랑이 일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자, 제자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항의하듯 예수님을 깨웁니다(37, 38절).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깨어나 혼돈의 바다를 통제하는 모습'은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시 65:7; 89:9; 사 51:9, 10).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39절). 예수님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 두려워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40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처음 보는 현상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차츰 깨닫기 시작합니다(41절).

기도제목

나의 적용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체 우리에게 닥친 역경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셨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하고도 위대한 능력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닥친 위기는 새롭고 놀라운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0절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로 평탄한 길을 벗어나 거친 길로 이끌기도 하시지만, 그 어떤 험난한 길에도 함께하시며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에 드리운 두려움의 그늘도 물러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4:35-41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

35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
으로 건너가자." 36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 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
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37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
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
느냐?"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
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무슨 일을 겪든지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11
수요일

한 사람을 위한 발걸음

바다 건너 거라사 지역에 오신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21절).

찬송 500장

성경 이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을 헤치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거라사 지역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엄청난 수의 군대 귀신이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가족과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도 모두 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들은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 돼지 떼를 바다로 몰아 몰살시킵니다(1-13절). 지역 주민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을 회복한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두렵고 추가적인 재산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서입니다(14-17절). 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자기 집과 마을에 남는 제자'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온전해진 그의 모습과 그의 말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18-20절).

기도제목

나의 적용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 바다를 건너가셨고(1절), 그를 고치신 후에 다시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21절).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과 수고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8-20절 떠나는 제자도 있고 남는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처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도록 보내기도 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집과 일상의 자리에 남겨 두기도 하십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두신 곳이 다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1-20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다

1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
역으로 갔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
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3 그는 무덤 사
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
슬로도 묶어 둘 수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
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
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5 그는 밤낮 무덤 사이
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 대고, 돌
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6 그가 멀
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7 큰소
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
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
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
히지 마십시오." 8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9 예수께서 그에
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0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기르는 큰 돼
지 떼가 있었다. 12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
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
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13 예수
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이천 마리
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
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1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
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
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15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
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16 처음
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
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17 그러자 그
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
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
원하였다. 19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
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20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
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1절 '거라사'가 정확히 어딘지에 관해선 여러 의견이 있다. 로마 도시 '거라사'는 갈릴리 해변에서 5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마태가 말한 '가다라'(마 8:28)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갈릴리 동편 해안에서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아마도 이 기적이 일어난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편 비탈에 위치하고 당시 '거라사'나 '가다라'로도 불렸던 '겔게사'로 추측된다.
2절 당시 이 지역 무덤은 돌을 파내 만든 굴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덤 사이'는 귀신 들린 자가 거주하기에 무난했을 것이다.
9절 '군대'로 번역된 단어인 '레기온'은 로마 군제에서 보병 6천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다.

나의 기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겠습니다.

12
목요일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 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 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앞에서 부정함과 죽음이 힘을 잃습니다.

찬송 272장

성경 이해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셨을 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찾아와 병들어 죽어 가는 딸을 고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에겐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21-23절). 한편, 12년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무리에 섞여 은밀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여인에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24-29절). 예수님은 그동안 부정한 여자로 여겨져(레 15:25-30) 소외된 채 지낸 여자를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병이 다 나았음을 선언하십니다(30-34절).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35, 36절).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대로 그의 딸을 살려 주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그들의 일상을 보듬어 주십니다(37-43절).

기도제목

나의 적용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0-34절 우리의 전인(全人)을 치료하십니다. 여인은 그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 숨어 지낸 삶의 습관 때문에 병이 나았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마음과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4, 36절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부정함의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야이로는 믿음으로 '다 끝났다'는 절망의 소리를 이겨 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려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은 믿음을 막지 못하고,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할 뿐입니다.

마가복음 5:21-43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
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
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22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
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23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
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24 그래
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
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25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온 여자
가 있었다. 26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
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
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27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여 들
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여자
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
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9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
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제
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
까?" 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
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
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
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
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
여라."
35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
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
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36 예수께서 이 말을 곁
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
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7 그리고 베드
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
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38 그들
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들어가셔
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
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
다." 40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
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
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42 그러자 소
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43 예수께
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
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고 말씀하셨다.

36절 '믿기만 하여라'라는 명령은 새롭게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다.

나의 기도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13
금요일

생각은 넓게, 짐은 가볍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선교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찬송 595장

성경 이해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청년이자 목수로만 아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전 예언자들처럼(렘 11:21)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1-4절). 예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이곳에서는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5, 6절).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임명하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3:14, 15) 그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능력을 주시고 선교 수칙도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테니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행장을 가볍게 꾸려야 합니다.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더 좋은 거처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느 마을에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심판의 경고를 남겨야 합니다(7-11절).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합니다(12, 13절).

기도제목

나의 적용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은 우리의 통념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8-10절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의 행장이 단출해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소유를 쌓아두지 않으며, 더 좋고 편한 삶에 목매지 않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여행 가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 줄 만큼 가볍습니까?

마가복음 6:1-13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다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2 안식일이 되어서, 예
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
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
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
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
킬까? 3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
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
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
다. 4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
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
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
다." 5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 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
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
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열두 제자를 선교에 파송하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
니시며 가르치셨다. 7 그리고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
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
능을 주셨다. 8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
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
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9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10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
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11 어느 곳
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곳을 떠날 때에 너희
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
할 증거물로 삼아라." 12 그들은 나가서, 회
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들은 많은 귀신
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
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1절 '고향'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줄곧 지내셨던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에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3절 '목수'로 번역된 단어(헬, 텍톤)는 나무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돌을 다루는 기술자로서,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도 했다.
7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신 17:6; 19:15).
11절 '발에 묻은 먼지를 떠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벗어날 때 하는 행동으로, '상관없음'을 나타낸다.
13절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병든 자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원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레 14:15-18 참조).

나의 기도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고, 삶의 짐을 가볍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14
토요일

의인은 죽어도 정의는 죽지 않는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다 죄 없이 희생당한 의인이었습니다.

찬송 324장

성경 이해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다" 혹은 "예언자다" 하는 소문과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자 요한이다"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14-16절). 헤롯은 자기 이복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해, 나바테아 왕국 출신인 본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은 율법(레 20:21)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은 헤롯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눈엣가시같이 여겨 당장 죽이고 싶어했지만, 헤롯은 요한을 의인으로 여겨 감옥에 가두기만 했습니다(17-21절). 그러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춤을 춰 유흥을 돋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선불리 맹세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자, 헤롯은 요한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 비겁하게 요한을 죽였습니다(22-29절).

기도제목

나의 적용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16절 의인은 약할지라도 정의는 강합니다. 악인 헤롯이 권력으로 의인 요한을 죽였지만, 요한의 정의는 살아서 헤롯의 불의를 꾸짖었습니다. 악인이 강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의롭게 살며 바른말을 하십시오. 약한 나를 통해 나타난 정의가 세상의 불의를 몰아낼 것입니다.

17-29절 불의하고 비겁한 권력 아래에선 의인이 고통을 겪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정의롭게 불의를 꾸짖다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현실을 미리 보여 주는 복선이었습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을 사는 한, 의인의 삶은 아픕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복'이라 하십니다(마 5:10).

마가복음 6:14-29

세례자 요한의 죽음

14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
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15 또 더러는 말하기
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
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16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
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
났구나" 하였다.
17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
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
았으므로, 18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
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그것은, 헤롯이 요
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
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
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
게 들었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
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22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
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
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23 그리고 그 소
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
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4 소
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
를 달라고 하여라." 25 소녀는 급히 왕에게
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
게 주십시오." 26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
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
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27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
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28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
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29 요한의 제자
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
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14절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 안티파스'다.
17절 '헤로디아'는 헤롯의 이복형인 빌립의 아내이자 또 다른 이복형의 딸이었다.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조카이자 형수였다.

나의 기도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의인이 되게 하소서.